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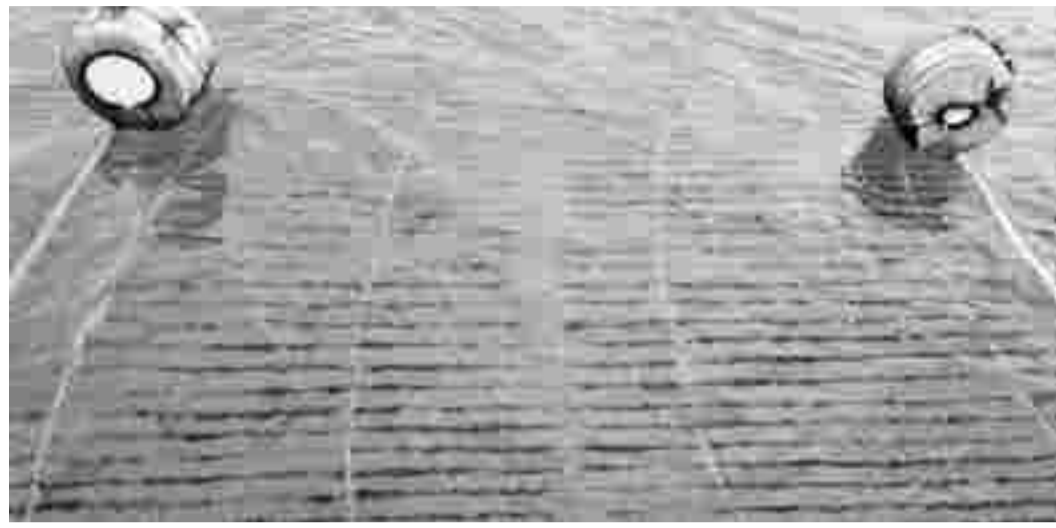
늦더위에 바다 수온 상승...해남 곱창김 양식 비상

이상 고온에 황백화 현상 겹쳐 생산량 50% 감소 4만t 예상 작황 부진에 값 크게 오를 듯

맛과 향이 뛰어난 '김 중의 김'으로 손꼽히는 명품 곱창김 양식에 비상이 겹쳤다. 김 씨앗을 불려 바다에 양식을 시작하는 9월 초부터 10월까지 이상 고온이 이어지며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김밭에는 열매가 거의 달라붙지 않았고 일부 열매는 검붉은색에서 황백색으로 변하는 황백화 현상까지 나타나 어민들의 애타운 태우고 있다. 14일 곱창김 주산지인 해남군 등에 따르면 곱창

김 생산 시기는 10월 말부터 11월 초로 바다 수온이 섭씨 22도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올해는 24도 정도로 2.6도 높았다. 이상기온으로 해남 곱창김 생산량은 지난해(8만t)보다 50% 정도 감소한 4만t에 이를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10월 16일 곱창김 생산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20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이 줄면서 생산 초기 100장 1푼당 2만 5000원 선인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 관계자는 "양식 초기 작황 부진으로 곱창김 생산 어린 시름이 깊어가지만, 최근 비가 내리면서 수온이 낮아져 작황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해역에 이상 고온이 이어지며 곱창김 작황이 좋지 않다. 곱창김 양식장.

해남군 관동지구 배수개선 완료 펌프장 1곳·배수로 2.6km 신설

해남군이 상습 침수지역인 화산면 관동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했다. 해남군군에 따르면 화산면 관동리·석호리 일대는 집중호우시 지방하천인 화산천 수위가 상승할 때마다 배수가 지연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해 영농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다. 해남군은 근본적인 침수 해결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 지난 2018년 국비를 확보하고 2019년 공사에 착공, 3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총 사업비 101억원(국비 97억원, 군비 4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 2조 2.6km를 신설하고 자동화공사 등이 완료됐다. 특히 배수펌프장을 조기 완료, 올해 7월초 집중호우시 관동지구의 배수를 빠르게 완료하는 등 배수개선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당화섬 신안 비금도에 '붉은 해변공원' 만든다

300억원 투입 54ha 규모 치유의 숲·해당화 정원 조성

신안군 비금도에 해당화의 붉은 빛을 테마로 하는 붉은해변공원이 조성된다. 신안군은 비금면 지동마을에서 붉은해변공원 사업소 현판식을 갖고 조성사업에 나선다. 붉은해변공원은 신안군의 '사계절 꽃피는 1004섬'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미 1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연차사업으로

모두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붉은해변공원은 비금-암태 추포 연도교 개통에 대비해 54ha 규모로 조성된다. 비금면의 상징인 해당화의 붉은 빛을 테마로 다양한 붉은색 계열의 꽃과 나무를 식재해 사계절 붉은 정열과 낭만의 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주요시설은 편백나무와 천일엽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 청년들의 귀촌 유치를 위한 스마트 혁신온실(바나나 하우스), 해당화 정원, 해변 체험공간, 수변 휴식공간 등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비금도 '붉은해변공원사업소' 현판식.

<신안군 제공>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24~29일 임시 휴관

목표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관장 김선태)이 '2021 김대중평화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휴관한다. 전남도와 김대중평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김대중평화회의'는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향하여'란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목포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개최된다. '2021 김대중평화회의'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화해와 용서, 인권,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MZ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평화축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국립 완도난대수목원' 조성 박차...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5년까지 국비 1900억 투입 1만7000여명 고용 유발 효과

완도군이 국립 완도난대수목원 조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 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에는 2025년까지 국비 1900억 원이 투입된다. 수목원 개장 시 연간 방문 인원은 85만명을 예상하나 실제로는 그 수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1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 1만7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대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기대 효과가 큰 만큼 완도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난대수목원 타당성 평가 준비를 위한 용역 보고회를 연 데 이어 조만간 원활한 사업 추

진을 위해 산림청, 전남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난대수목원은 리빙 뮤지엄(Living Museum) 즉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조성 방향을 설정했다. 과거 수목원의 기능인 식물 수집·전시·이용 측면을 넘어서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과 같은 문화적 시설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완도수목원 400ha 부지에 전시·관람지구, 서비스·교육지구, 보전·복원지구, 연구·지원지구, 배후 지원시설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구심점인 전시·관람지구에는 교육 특화 주제를 비롯해 사계절 푸르른 난대 수종이 가득한 윈터가든, 장보고정원, 완도호랑가시나무원, 트리탑에코로드, 음악 분수 등 다양한 공간이 갖춰진다. 전국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과 방대한 수목원 내부를 순환하는 산악열차도 설치한다. 수목원을 공공 편의 공간, 복합 여가 공간, 주민과 동반 성장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 완도수목원 전경.

완도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로 만든 향토 먹거리를 판매하는 로컬 푸드 거리도 만들어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인근 유휴 농지를 수목원에 납품할 조경 수목, 화훼류 등 재배지로 탈바꿈시키고 주민 주도의 영농회조합 등을 출범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 관계자는 "국립난대수목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면서 "난대수목원과 해양치유산업을 연계 육성해 완도를 산림과 바다를 아우르는 치유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영암군, 2만8355개 정비

영암군은 지역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는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국민의 안정적인 도로명주소 정착과 길찾기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대상은 영암군에 설치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2만8355개이며 스마트 KAIS 단말기를 이용해 안내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위치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군은 올해 일제조사를 통해 정상 2만8287개, 훼손 11개, 망실 18개, 표기내용 1개, 위치·방향조정 38개 등을 했으며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명판 49개의 유지보수를 완료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똥똥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